



# 에반 믹 예열 끝! “맡겨만 주오”

## 김기태 감독 “이닝 늘리며 구위 점검할 것”

유쾌 발랄한 ‘신입 호랑이’ 에반 믹의 한국 도전기가 시작됐다. KIA는 얼마 전 새로운 외국인 선수 에반을 영입했다. 에반은 지난 23일 삼성을 상대로 한국 무대 첫 스타트를 끊었다. 위력적인 커터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운 과감한 피칭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그는 지난 24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포수 백용환과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두 번째 등판 만에 한

국에서의 첫 승도 신고했다. 위명업을 끝낸 에반은 슬슬 속도를 높여 한국 성공기에 도전한다. 28일 SK와의 홈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 보고 공 개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단순한 공 개수가 아니라) 구위가 어느 정도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 많은 공을 던질 수도 있지만 부상을 조심시켜야 한다. 에반에 따라서 마운드도 달라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에반은 미국에서 중간계투로 활약을 했던 선수다. 또 KIA의 시즌이 한창인 만큼 불펜에서 직접 점검을 하며 앞으로의 보

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KIA의 바로 위에 위치한 SK와 한화와의 중요한 일정, 에반에게도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선수의 한국리그 성공 여부의 주요 요소인 ‘적응력’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다. 팀 합류 1주일 만에 새 팀에서의 적응은 완벽하게 끝났다. 지난해 불티 모아 산하 트리플 A 노포크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윤석민과 스티븐슨이 동료로 함께하고 있고, 성격 자체도 외향적이다. 등장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다. 불펜 피칭을 위해 처음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날 에반은 “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불고기를 좋아합니다”를 외치면서 남다른 친화력을 과시했다. 선수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필의 딸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덕아웃에서의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다.

에반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국 음식도 잘 먹는다. 불고기, 돌솥 비빔밥, 김치 등을 좋아한다. 매일 음식도 잘 먹는다”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제 2의 야구 인생, 의지도 강하다. 올해로 32살인 에반은 결혼 1년차의 신혼이기도 하다. 빅리그의 높은 벽과 가장이라는 현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또 어렵게 선택한 제 2의 인생인 만큼 외국인 선수 성공 신화도 쓰고 싶다. 선수단 생활에 대한 적응력은 이상무. 세밀한 한국 타자들에 대한 대처, 미국과는 다른 야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에반과 KIA의 가을 성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칭진기 잡았어요” 필, 광주서 딸 돌잔치

한국 사람이 다 된 KIA의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다. 필은 지난 27일 광주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딸 킨리의 돌잔치를 열었다. 킨리의 첫 생일잔치를 위해 필은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사람들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KIA 선수단과 구단 직원, 지인 등 50명이 참석한 돌잔치에서 주인공 킨리는 돌잡이로 판사봉, 마이크, 돈 대신 ‘칭진기’를 집어들었다. 필의 한국어 퀴즈 시간도 마련됐다. 필은 일취월장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를 토박토박 발음해 행사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킨리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주의 딸’이다. 지난해 필 부부는 출산전담반까지 구성된 구단의 지극 정성 속에 다른 외국인 선수 부부와는 달리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필이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KIA 선수로 뛰면서 킨리는 선수들에게도 남다른 조카가 됐다.

선수단 대표로 축하 인사를 한 주장 이범호는 “필이 광주에서 딸을 얻고, 건강하게 돌잔치까지 열게 돼 기쁘다”면서 “KIA타이거스 선수들과 함께 오래 뛰었



으면 좋겠고, 킨리 역시 광주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은 “딸 킨리의 첫 생일 파티를 찾아 축하 인사를 해 준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들 모두 고맙다. 킨리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이런 행사까지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돌잔치에 신경 써준 구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실력도 키도 ‘쑥쑥’ 19살 박정수 “더 커야죠”

### 덕아웃 T 특특

▲“수박처럼 보이더라고요.” = 배장 넘치는 고졸 루키의 신나는 데뷔 경기였다. 고졸 내야수 황대인은 지난 26일 프로 첫 1군 등투와 함께 롯데전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첫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리로 물러났던 그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플라이를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석 만에 우전 안타를 때리며 첫 경기에서 프로 데뷔 안타를 만들어냈

다. 첫 1군에서의 야간 경기였지만 황대인은 썩었다. “격정했는데 공이 잘 보였어. 공이 수박처럼 보였다. 안타를 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타를 때려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이 뜨거웠나 봐.” =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과 파워는 황대인의 장점이다. 그러나 코칭스태프를 노심조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비다. 김기태 감독도 황대인을 첫 1군 등투 2루수로 선발 출전은 시켰지만 마음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난히 2루수 앞으로 가지 않던 공, 황대인은 5

회가 되어야 처음 공을 잡을 수 있었다. 아웃을 만들기는 했지만 공을 한번 더듬으면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공이 뜨거운가 한번 떨어트리더라”고 웃으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더 커야죠.” = 실력과 함께 키도 같이 크고 있는 10대다. 고졸 루키 박정수는 1996년생 만으로 19살이다. 아직 성장이 진행되는 나이인데다 프로에 와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다 보니 키가 자랐다. 입단 당시 178cm이었던 키는 어느새 180cm을 넘

었다. 박정수는 “프로 와서 키가 컸다. 더 크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어렵게 안 해도 괜찮을 것인데.” = 잘나가던 타격이 주춤하면서 포수 이흥구의 고민이 커졌다. 5월 한 달 0.346의 타율로 3개의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지만 6월 11경기의 타율은 0.111로 뚝 떨어졌다. 7월 홈런 3개를 날리기는 했지만 역시 타율은 0.182에 그치고 있다. 이흥구는 “체력적인 문제는 없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기도 했고,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상대 배터리도 초반보다 어렵게 승부를 해온다. 어렵게 안 해도 괜찮을 것인데... 쉽게 상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남녀양궁, 리우올림픽 티켓 확보

### 세계선수권 리커브 8강행

‘광주의 딸’ 기보배와 최미선 등 한국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2015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8강에 오르며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남자 대표팀도 8강에 들어 올림핀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예선전을 1위로 통과한 한국 남녀 대표팀은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리커브 단체전 본선 16강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단체전 8강

안에 든 팀은 리우올림픽 출전권 3장씩을 따게 된다.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김재영(경희대) 등 여자 양궁 대표팀은 16강에서 프랑스를 5-1로 가볍게 눌렀다. 구분찬(안동대)·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청주시청)이 나선 남자팀은 16강에서 폴란드를 맞아 슛오프 점전 끝에 세트 점수 5-4로 승리했다. 8강전에서 여자팀은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남자팀은 스페인과 맞붙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K리그 최고 유소년 클럽은?

### U18 챔피언십 포항서 개막

K리그 최고의 유소년 클럽 자리를 놓고 겨루는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이 28일 포항에서 시작했다.

8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K리그 산하 유소년 팀 22개팀이 참가했으며, 각 팀은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16강부터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를 벌인다. 4개팀이 속한 A~D조에서는 상위 3개 팀이, 3개팀으로 구성된 E조와 F조에서는 상위 2개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결승전은 8월1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진행

된다. C조에 배치된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클럽 광양제철고는 29일 전북 영생고, 31일 포항 제철고, 8월2일 성남 흥성고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E조에 속한 광주 FC 유소년 클럽 금호고는 29일 수원 매탄고, 31일 강릉제일고와 예선전을 치른다. 또 18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본 대회와 함께 17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5 K리그 U17 챔피언십’도 동시에 진행된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저학년 선수들에게 실력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인어의 공중제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결승에서 브라질 여자 대표팀 선수가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힘든 기억이 80~90%”

#### 김연아, 선수시절 회상

‘피겨 여왕’ 김연아(25)는 27일(현지시간) “피겨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 순간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도하 골즈 포럼’(Doha Goals Forum)의 타임아웃 세션에 참석해 “선수생활 17~18년 중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80~90%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도하 골즈 포럼’은 칼 루이스·마이클 펠프스(미국), 나디아 코마네치(루마니아) 등 전 세계 전설적 스포츠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최고점을 얻었던 순간과 2009년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라고 회고했다. 이어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경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면서 “이번 스페셜올림픽에 참석한 발달장애인들도 어려움을 딛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연아는 “어제 LA 스페셜올림픽 농구경기를 관람했는데 승리를 위해 화내고 다그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김연아는 이번 ‘2015 LA 하계 스페셜올림픽’을 계기로 스페셜 홍보대사와 유니세프 국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연합뉴스